



즐겁고 행복한 그들의 도전, 정보미디어 12학번 조현수, 이용석 동문 인터뷰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떨리고 멋진 일인가. 청마의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창업을 시작하는 동문이 있어 취재해 보았다. 전국 방방곡곡에 오고 가면서 분주하지만 겸손한 태도로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준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국 횡단 여행 중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내고 모교 교수님들의 지지를 받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왼쪽부터 이용석, 조현수 동문

Q 창업을 진행 중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나 여행 계획들을 테마별로 쉽게 저장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 테마 큐레이션 서비스 'OPEN TICKET'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상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장소 정보들을 손쉽게 테마별로 저장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 혹은 여행 전문가들의 콘텐츠를 쉽게 검색하고 스크랩하여 장소를 선택하는 불편함과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Q 정보미디어 12학번 동기 분들과 미국 횡단을 하면서 서비스 모델을 구상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횡단은 어떻게 계획하게 되었으며, 여행 도중 어떻게 이런 사업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친한 동기들끼리 1달 여간의 연구기간을 헛되게 보내기 싫었고 회사를 다닐 때는 할 수 없었던 조금 스케일이 큰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여름학기에 미국 USC 연계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가는 일정이 있었기에 미국 전체를 로드트립을 해보자는 아이디어

가 나왔고 정보미디어 전공자들답게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전 과정의 기록을 사람들과 공유하여 의미있는 기록을 만들고자는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는데 워낙 짧은 시간에 긴 여정을 감당해야 하다보니 장소 선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수많은 장소관련 서비스들이 있고 블로그에는 수만 가지의 정보들이 있는데도 말이죠. 결국 문제는 정보의 양이 아닌 선별과 정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선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추천(소셜)과 상황에 맞는 선택(테마)인 것을 경험으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Q 정보는 양보다는 선별과 정돈이라는 말이 인상 깊네요! 횡단을 할 당시 플랫폼이었던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보니 아직도 여정이 고스란히 남아있던데요, 보아하니 횡단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희가 횡단 전 맛보기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LA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주말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큰 준비를 못하고 그냥 무작정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막상 가면 다 알아서 된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을 사실 했었죠.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 큰 도시를 이틀 만에 여행할 해야 하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쉽게 정하지 못해 엄청 고생을 했고 밤에는 모텔을 잡지 못해 늦은 시간에 거의 20개가 넘는 숙박시설을 헤매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여행에서 사전 정보

의 수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다행히 이를 계기로 횡단 시에는 무조건 다음장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숙박을 미리 예약하기면서 그럭저럭 계획적인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창업을 결심하고 정보미디어 MBA 과정에 들어오셨다고 들었는데 2년간의 학교 과정에서 창업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얻은 가장 값진 것은 교수님들과의 대화와 창업동기들이에요. 사실 학업과정의 목표는 취업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업이 창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기 보다는 기존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사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은 스스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문제 같아요. 또한 많은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창업을 떠나서도 자신의 직관을 기르고 통찰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학교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은 워니워니해도 교수님들과 동기들 같은 인재가 곁에 많이 있었다는 점이지요.
제가 있을 당시에도 실제로 창업을 하셨고 성공적으로 EXIT를하신 한재선 교수님의 수업은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었고요 실제로 창업 후에도 종종 찾아 뵙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Q 4월 서비스 개시로 매우 분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AIST에도 창업을 꿈꾸고 있는 후배들이 있을 텐데, 창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웁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문님의 창업 팀의 어려웠던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인력채용인데요. 창업을 하게 되면 하기 전과 정말 맞아떨어지는 게 단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변수투성이인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당연히 잘될 줄만 알았던 일들도 제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자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역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자신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을 믿고 꾸준히 회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는 같이 창업한 팀원과의 신뢰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 함

께하고 있는 이용석 동문이 있어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큰 힘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력문제인데요. 창업을 하게 되면 고급인력을 정말 저렴하게 활용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더불어 IT시장의 기술자 인력난은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지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좋은 기술자들을 얼마나 잘 영입하느냐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창업가의 역량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많은 반성과 노력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Q 학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수님들로부터 상당한 자본금을 투자 받는 등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사업 모델이 비전 있다는 얘기겠지요? 구체적인 얘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엔젤투자 제의를 받고 '그냥 힘내라고 말씀만 해주신 것이겠지'라고 생각이 들었지 실제로 이루어 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창업 시작 후 종종 김영걸 교수님을 찾아 뵙고 자문을 구하곤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저를 계속 지켜보셨는지 교수님들을 앞에서 사업아이템에 대한 피칭(Pitching)을 할 기회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에 참석하신 교수님들 전원이 투자 참여를 해주셨다는 메일을 받아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수님들의 투자가 저희 아이템의 가능성만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온 저의 모습과 안정적인 직장을 나와 창업을 열심히 시작한 저희의 열정에 잠재적인 가치를 믿어주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요 반드시 그에 보답할 수 있는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Q 앱 개발이 완료되면 서비스 론칭이 시작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블로그나 여행 서적과 비교하여 새로운 점이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는 기존의 여행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의 어려움과 검증되지 않은 신뢰도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편리한 큐레이션 기능과 소셜이라는 장점으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블로그들은 온라인 상에 너무 많이 흩어져 있으며 사용자들은 여행을 갈 때, 이 정보들을 손쉽게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 서적의 경우는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내용의 자유도 측면에서 지나치게 떨어져 있죠. 저희 서비스는 이 두 가지 채널의 장점을 결합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여행 계획 자체를 힘들게 짤 필요가 없이 저희 서비스에서 자신에게 맞는 여행 테마를 추천할 수 있는 DB를 갖추고자 합니다.

Q 이번 프론티어 테마가 도전입니다. 동문님의 경험과 도전정신은 이번 테마에도 아주 걸맞고 동문님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문들에게 각오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제가 도전을 고민하고 계신 동문 분들께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시작을 하시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각 분야의 우수 산업에 퍼져있는 동문님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러한 도움이 가장 극대화 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창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어느 때 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 말씀드리고 싶네요.

